

이제열 법사의 경전속의 수행법

믿음은 수행의 시작

널리 알려진 대승 경전 중에서 <유마경>은 부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를 설하는 '불국품'을 시작으로 전개됩니다. 이곳을 보면 바이샬리성에 사는 보적이라는 이름을 가진 장자의 아들이 자신의 친구 오백명과 함께 부처님을 찾아뵙고 공양을 올리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들이 바친 공양물은 뜻밖에도 그들이 쓰고 왔던 아름답게 꾸며진 일산(日傘, 일종의 양산)이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들을 바친 오백개의 일산을 하나로 만드시고 발가락으로 땅을 누르시니



부처님의 설법 바로 들으려면 믿음 갖춰야

보적 장자는

부처님이 보이신 불가사의한 모습을 찬탄한 뒤 여기에 찾아온 친구들이 모두 다 아늑다라삼막삼보리심을 일으켰으니 부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처의 나라가 어디 있으며 그 곳에는 어떻게 해서 태어날 수 있는지를 설명해달라고 묻습니다. 이에 부처님은 중생의 국토가 곧 부처의 국토이며 그 국토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정정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설법을 이어가셨습니다.

대승경전이 거의 그렇듯 <유마경> 역시 고도의 상징과 비유의 기법으로 진리를 설하고 있습니다. 보적(寶積)이라는 젊은 이는 이름부터가 보배를 쌓았다고 했으니, 이는 바로 부처님께 귀의한 중생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마음은 항상 공평하고 초라하지만 부처님을 믿는 마음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견줄

바 없는 보배를 얻었으므로 보적이라 이름 한 것입니다. 그 보적의 아버지가 장자라 했으니 장자는 곧 부처님이고, 부처님께 귀의한 중생은 부처의 자식으로 뒤를 이어 역시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나오는 친구들 또한 부처님께 귀의한 중생들로, 오백이란 숫자는 신심을 일으킨 무량한 수효의 중생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바친 일산 또한 믿음을 상징한 것으로, 일산이 햇빛을 가려주고 비바람을 막아주듯 믿음이야말로 능히 중생의 온갖 괴로움을 막아 주므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부처님이 오백명이 바친 그 많은 일산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은 일체 중생의 모든 믿음이 결국 하나의 깨달음으로 귀결된다는 의미이고, 발로 땅을 누르셨다는 것은 부처님이 발을 딛고 계신 장소는 이 세상 밖이 아니라 바로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곳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만들어진 일산 속에 모든 중생의 세계와 부처의 세계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것은 중생들의 믿음이 부처의 깨달음으로 완성될 때, 중생의 세계와 부처의 세계가 차별이 없어진다는 이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불국토를 장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믿음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 믿음은 곧 아늑다라삼막삼보리심이고, 이것을 발할 때에 부처님의 설법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것이며, 이로부터 수행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기 전에, 자신에게 부처님을 향한 믿음이 갖추어져 있는지 우선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유마선원장>

수행의 키워드 '견지 수증 행원'

見地 이론 修證·行願 보고 닦고 실천하는 것

'대만의 감산' 남회근 거사 수행법

불가 유가 도가 등 삼교에 회통한 가르침으로 불법의 깊이와 외연을 확장한 중국 명대의 고승 감산 대사가 되살아 나온듯, 활발한 강의와 저술활동으로 '현대의 감산 대사'로 불리는 남회근(南懷瑾, 86, 사진) 거사. 그의 30여 저술은 불유도 삼교의 수행법을 실제로 수증(修證)해 그 깊고 어려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어, 10여 년 전부터 중국 대륙에서는 필독서로 꼽히며 베스트셀러로 자리잡고 있다. 몇 년 전 <금강경 강의>와 <정좌수도 강의>에 이어 최근 출간된 <남회근 선생의 알기쉬운 불교 수행법 강의>(신원불교역, 씨앗을뿌리는사람들)는 그의 수행법을 드러낸 대표작이다.



대-소승 수행법을 회통하고 있는 <불교 수행법 강의>의 장점은 수행과정에서 빠지기 쉬운 미혹과 기로,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착오에 대해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그 타파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바른 수행에 대한 불교적 관점을 정면으로 제시하고, 정좌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가 선의 증득을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남 거사는 이 책에서 불법을 닦는 핵심이 견지(見地), 수증(修證), 행원(行願)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삼위일체로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견지란 이론(理)이며, 행원과 수증은 현실(事), 즉 사상(事相)이다. 견지란 견도(見道)이며, 도를 보려면 반드시 대지혜가 있어야 한다. 수증이란 경우론에 따라 선정을 닦는 것이다. 머리로 안 이치를 현실과 배합시키는 수행이다. 수증의 세 박자는 보고(見) 닦고(修) 실천(行)하는 것이다."

남 거사는 선종의 폐해도 과감히 지적한다. 견지의 측면에서 불교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은 분명하지만, 이 때문에 도리어 후세에 보리를 증득한 자가 적어졌다는 것이다. "마조 선사의 '마음이 곧 부처(心即是佛)'라는 가르침은 많은 도인을 배출하게 했다. 그러나 뒷날 '직지인신 견성성불'의 이치가 명확히 설명되면 될 수록 불화는 더욱 앞당겨졌고 수증 공부는 갈수록 실질적인 토대가 없어졌다. 크기만 하고 실속이 없어서 차라리 지관(止觀)을 닦느니만 못하다. 관심(觀心)법문을 행하면 적어도 과위(果位)의 반 정도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남 거사는 교리는 도외시하고 화두 하나만 들고 선(禪)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일부 수행자의 태도를 비판한다. 옛 조사들은 삼장 12부를 철저히 통달한 후, 다시 교리를 포기하고 직접적인 하나의 법문을 따라 깊이 들어갔으며,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련에만 전념하면 되지 경론을 꼭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은 중대한 착오라고 말한다. 이치에 밝지 못하면 관점이 바로 서지 않아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없으며, 공부가 시원찮은 것은 이치에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 거사는 수증의 방법으로서 소승(小乘)의 수행법도 강조한다. 대승도 소승의 기초 위에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당송(唐宋) 이전, 불교 교리가 지금처럼 극성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많았던 것도, 불교의 교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증의 방법을 붙들고 거기에 매진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남 거사는 '화두는 지관 법문'이라고 규정한다. "화두 역시 지관(止觀)법문이지만 모든 의문이 한 곳에 집중되기 때문에 보통의 지관수행 보다는 탁월하다. 화두에 몰두해 아무 것도 모르고 어떤 망상이나 잡념도 없으니, 이것이 바로 지(止)이다. 그러다 어떤 기회에 갑자기 열려 이 문제 전체가 해결되어 버리니 비로 관(觀)인 것이다."

남 거사는 선의 진정한 중심은 달마 조사가 제시한 이입(理入)과 행입(行入) 가운데 '행입'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이(理)'는 단순한 이치가 아니라 지관(止觀)과 관심(觀心)의 이론으로부터 시작해 나아가 도를 깨치는 것을 말한다. 행입은 십계(十戒) 및 보살의 행원을

"참수행자는 늘 자신의 心行·사상·행위 검사하는 사람"

포함하는 것으로, 대인관계나 일 처리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낱말이 파악함으로써 도를 증득하고 깨닫는 것이다.

'수행의 마지막은 행원(行願)'이란 그의 말도 '행입'의 연장선상에 있다. '행원이

란 자신의 심리적 행위를 바르게 되어나가는 것이다. 심리 행위를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공부가 진보할 수 없으며, 견지 또한 원만할 수 없다. 불제자가 이론만을 말할 뿐 생명의 근원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일만 겁이 지나도 성인의 경계를 증득하지 못한다. 참수행자는 수시로 자신의 심행(心行)과 사상, 행위를 검사하는 사람이다."

남 거사는 "더 이상 의문이 없는 경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배우지 않아도 되며, 망념도 사라질 수 있다"며 영명수(永明壽) 선사사의 <종경록>에 기록된 '깨달음 성취의 판단기준 10가지'를 제시한다.

△완전히 견성해 대낮에 색깔을 보듯 먼수보살처럼 행할 수 있는가 △사람을 만나고 상황에 대처함에 모두 밝고 뛰어나 도와 상응하는가 △조사들의 연구를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의심스럽지 않을 수 있는가 △스스로 잘못에 대해 능히 의문을 풀어들 수 있는가 △언제 어디서든 지혜가 막혔을 때 드나 생각없이 모두 원만하고 어떠한 경계에도 방해받지 않는가 △일체의 순역(順逆)과 호오(好惡)의 경계를 모두 알아 타파할 수 있는가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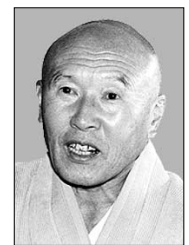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남회근 거사는

1918년 절강성 운주 낙청현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유교, 불교, 도교의 주요 경전을 배우고 20대 초반에 불교에 귀의, 거사의 몸으로 사천성 아미산 대방사에서 3년간 폐관(閉關) 정진했다. 그 뒤 티베트에서 밀교를 깊이 연구하고 운남대학, 사천대학에서 강의하며 대장경과 중국 역대 전적들을 두루 섭렵했다. 1949년 대륙이 공산화되자 대만으로 이주, 보인대학 및 문화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중들을 상대로 삼교의 주요 경전들을 차례로 강의하며 황폐해지는 전통사상의 중요성과 의미를 일깨우는 데 진력하고 있다. 현재 홍콩에 거주하고 있다.

선어록·경전 함께 공부합시다

염불 참선과 함께 3대 방편문의 하나인 간경(看經)이 선과 교를 함께 닦는 선교쌍수(禪教雙修)의 차원에서 대중화 되고 있다. 선어록과 경전을 강의하면서 실천과 생활선을 지도하는 사찰과 단체들의 공부모임들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법회도 늘어나고 있다. 경전 공부모임에서 불교를 바르게 알고,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보자.



○...대전 보현 불교대학은 1월 12-16일 저녁 7시 대학내 큰법당에서 출산 학생선원 조실 우룡(사진) 스님을 초청, '보조국사 지눌스님의 수심결(修心訣)' 대강좌를 연다. (042)624-6555



○...공주 학림사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30분 <금강경 오가해>,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문도 입도요론> 특강법회를 연다. 학림사 오동시민선원 조실 대원(사진) 스님이 설법하며 주말 철야 참선정진도 직접 지도한다. (042)825-1724

○...한국선문학회연구원(원장 성본스님)은 2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5시 서울 성북동 연구원 법당에서 '임제어록'을 중심으로 선어록 특강을 연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인 성본 스님이 설법한다. (02)765-6539

○...서울 불심정사(cafe.daum.net/buddhajukbi)는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육조단경 강의'를 개설하고 매주 첫, 셋째 일요일 저녁 10시 선 법문 및 문답 시간을 갖는다. 강의는 조실 청봉 스님이 맡는다. (02)534-7515

○...지난 1월 청정 세계사에서 신년 기도회를 비롯한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홍)는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30분 정진방식으로 <금강경> 5독송을 하며, 저녁 7시부터 8시30분까지 30분 간곡으로 2독송을 한다. (02)742-0172

○...부산 무심선원(www.mindfree.net)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30분-8시 30분 <원통목>,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5시 <원오심요> 및 <도덕경>, 매주 목요일 저녁 7-8시 <중도기>, 매주 목요일 오전 11-12시 <신심명>, 매주 금요일 저녁 7-8시 <중도기> 강좌를 연다. (051)515-7226

당신도 설법을 잘할 수 있습니다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비유법, 대기설법 <실기훈련·설법자료제공>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과목

- 발성훈련, 표정연기, 설득, 상담기법
-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수안내

- ▶ 기간: 2개월 과정 * 수시접수
- ▶ 강의: 수요일 - 매주 (수) 오후 1시 ~ 3시
- ▶ 목요일 - 매주 (목) 오후 7시 ~ 9시
- ▶ 지도교수: 金哲會 박사
- ▶ 장소: 본연수원
- * 출장 또는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신청

☎ 02)747-1567/02)737-1567
H·P 011)248-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중로구 중로 3가 20(영흥 B/D 4F)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 특직 - 울 50% 폴리에스테일 50%
적삼, 바지 150,000~180,000
동방, 바지 180,000~210,000
두루막 150,000~180,000
2. 무명(맥물 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3. 무명, 면: 면 100%(맥물 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4. 숨 없는 누비(맥물 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00,000
두루막 170,000
5. 면 목화솜 누비(맥물 염색)
적삼, 바지 230,000 동방, 바지 270,000
두루막 210,000
6. 골 덴: 면 100% 적삼, 바지 180,000
7. 장삼 고급모직 220,000~250,000
대가사 150,000 반가사 70,000
법복 모직 60,000~80,000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지이열 중앙로역 3번출구(동아백화점 방향 입구)

34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이름승복 전시장: 053-256-0108
공 장: 053-425-4449
휴대폰: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당뇨

다온 밸런스

- 당뇨,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그것은 다온 밸런스는 사람의 체질을 약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지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한 혈당치가 다온 밸런스의 당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천천히 떨어지도록 물질 영양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밸런스를 조정해 줍니다.

▶ 다온 밸런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다온 밸런스 90mg cap 90 cap x 3병
1개월분 130,000원

관리에 자신있습니다. 지인식 동우회 회장 개발약사(한약사) 박동환

당뇨병 및 기타질환에 대한 다온 밸런스의 효과

- 위계양, 비만증, 무중,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등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자율신경실조증
- 피로분 잃고고 뇌를 맑게 해줌
- 정력증강, 술, 담배해독
- 피부분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암, 관절염, 고혈압

조원제미칼라이프 Co.
(주)반도체약품사법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두리안(DURIAN)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과일 두리안 / 이제 태국까지 직접 가지지 않아도 열대지방에서 '과일의 왕'이라는 두리안을 편하고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두리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B,C가 풍부하며, 건강효과도 탁월합니다.
- 무게: 약 3Kg
- 지름: 20~30cm
- 원산지: 태국
- * 태국에서 영아 40°C 급상(직접하여 냉장장고에 보관중)
- 가격: 1개 35,000원
- 2개 이상 구입시 개당 30,000원
- * 택배비 무료 (제주도, 도서지역 제외)

현재 백화점에서 상태에 따라 50,000원~120,000원에 판매중

■ 판매 및 문의: 불자기업 한다면
Tel 031)797-1357
H·P 011-474-1345 / 019-229-1345

전화주시면 두리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